

지역방언과 국어교육

김봉국*

<차 례>

- I. 머리말
- II. 지역어와 방언, 그리고 지역방언
- III. 지역방언을 토대로 한 국어교육
- IV. 맺음말

I. 머리말

요즘은 방언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방언이 지니는 본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크게 인정하고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평가절하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방언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인상 때문에 방언의 사용을 비교육적이라고 보거나 부정적 인식의 효과로 사용하는 면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아직까지도 일부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용되는 각 지역방언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중점을 두기는 하지만 서서히 인식의 방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한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방언이 갖는 가치나 의의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 및 교육자들이 역설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긍정적인 의미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오래된 일은 아닐 듯싶다. 물론 교육

*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적인 차원에서 지역방언을 확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표준어가 갖는 가치나 의의, 그리고 그 기능이 더 크게 부각되어 방언의 가치나 의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일 수도 있다. 즉 표준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열등의식과 이질감을 심어주게 되었던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양립하기 힘든, 어쩌면 대립 관계에 있을지도 모르는 ‘지역방언’과 ‘국어교육’이라는 이들 둘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살펴봄으로써, 국어교육에 있어서 지역방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어교육에서 지역방언의 효율적인 방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2장에서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인 ‘지역어, 방언, 사투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역방언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국어교육에서 지역방언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방언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 어휘와 국어교육의 관계, 방언 음운과 국어교육의 관계, 방언 문법과 국어교육의 관계 등을 통하여 지역방언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국어교육에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다양한 방언의 예를 통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II. 지역어와 방언, 그리고 지역방언

방언이란 원래 균질적이던 한 언어가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화되어 생겨난 분화체로서, 특정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서만 사용하는 음성, 음운, 문법, 어휘의 체계를 가리킨다. 즉 방언이란 특정 언어 집단에서 쓰이면서 다른 언어 집단의 언어 체계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한 언어의 변종 또는 변이체인 것이다(김옥화, 2001 : 119). 방언은 분화 요인에 따라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으로 나뉘는데,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지역방언은 큰 산

맥이나 강 또는 숲과 같은 지역적인 요인(지리적 장애와 먼 거리 포함)에 의해 발생한 언어 분화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어학에서 ‘방언’은 한 언어의 하위 형식으로서 그 자체가 독자적인 체계를 가진 언어 형식을 가리키기 때문에 ‘방언’이란 용어에는 표준적인 언어 형식에서 벗어난다거나 정확하지 않다거나 옳바르지 않다거나 하는 등의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방언’ 대신 ‘사투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규범에 어긋난 지방의 고유한 말을 가리키거나 품위 없고 세련되지 않은 시골의 말을 가리키기도 한다.

‘방언’은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사투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방언’을 ‘표준어와 달리 그 지방에서만 사용하는 말’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언어학에서는 ‘방언’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자체로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 언어의 변종’으로 사용하여 ‘표준어와는 달리 그 지방에서만 사용하는 말’인 ‘사투리’와 구별한다. 따라서 ‘방언’은 ‘표준어’와 구별되는 말뿐만 아니라 ‘표준어’와 동일한 말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언어는 크고 작은 방언으로 구성되며, 한 언어를 구성하는 방언들은 서로 대등한 자격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언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말이며, 표준어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주로 현재 서울의 중류층 또는 교양 있는 계층이 사용하는 말과 그 외의 다른 언어 요소들을 합하여 만든 인위적이고 추상적인 말이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의 방언도 표준어와 일치할 수 없다. 표준어는 비록 인위적으로 형성된 말이지만 모든 국민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국어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으며, 그 자체로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표준어도 국어의 한 방언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역어는 방언구획 또는 언어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지역의 언어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된다.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단일한 구조를 갖는 단일어라 할 수 있는데 방언은 일정한 분화를 거친 일정 지역의 언어 체계를 뜻하여 어느 정도 방언권을 상정할 수 있으나, 지역어는 이러한 전제를 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방언권이 확립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어’는 방언권의 확립 없이 ‘○○지역에서 쓰이는 한국어’ 정도의 잠정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지역어의 연구는 개별방언을 하나의 독립된 언어체계로 보고 그 체계 전반을 기술하든가 어떤 언어현상을 선택하여 정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시도된다(이병근, 1985 : 217).

좀더 지역을 넓혀 예를 든다면 강원도 방언이라 일컫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영서 지역과 영동 지역이 여러 방언적 특징에 있어서 구조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둘을 묶어 ‘강원도 방언’이란 표현을 쓰기는 적절하지 않다(이병근, 2001 : 22).

지역방언이란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해 지리적으로 분화된 한 언어의 변종을 의미한다. 지역방언은 그 규모에 따라 대방언, 중방언, 소방언으로 구분되는데, 한 언어를 구성하는 가장 큰 체계의 방언들을 대방언이라 하고, 대방언을 구성하는 가장 큰 체계의 방언을 중방언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방언을 구성하는 가장 큰 체계의 방언을 소방언이라 한다(최명옥, 2005 : 51). 일반적으로 국어의 경우에 대방언은 두 道 이상을 포함하는 방언인데, 보통 6개의 대방언으로 구성된다. 경상도를 아우르는 ‘동남방언’, 전라도를 아우르는 ‘서남방언’, 평안도를 아우르는 ‘서북방언’, 함경도를 아우르는 ‘동북방언’, 제주도를 포함하는 ‘제주방언’, 서울, 경기, 충청도, 강원도를 아우르는 ‘중부방언’이 그것이다.

Ⅲ. 지역방언을 토대로 한 국어교육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로 설정하였으며,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한 국어과의 교육 목표는 ‘국어 활동과 국어

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로 설정하였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역방언을 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국어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용 방안을 이 글에서 모색해 보기로 한다.

방언 특히 지역방언은 국어교육과 상호대립적인 말일 수도 있다. 국어교육은 주로 표준어 교육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방언을 통한 국어교육은 양립불가능한 말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어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역방언을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어교육에 있어서 지역방언의 활용 가능성을 방언 어휘, 방언 음운, 방언 문법 등을 고려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방언 어휘와 국어교육

국어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언어학적 층위는 어휘일 것이다. 해당 지역방언에서 사용되는 방언 어휘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에는 주로 국어 사용 기능 중 이해교육(읽기)과 표현교육(쓰기)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방언 어휘를 활용하여 읽거나 쓰기 활동을 할 경우에는 표준어 어휘보다 훨씬 다양한 의미, 기능, 용법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어휘력의 확장 및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국어교육의 목적이 일차적으로는 국어의 의미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표현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면 표준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각 지역방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이런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라면 지역방언에서 사용되는 방언 어휘를 정확히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지역방언을 쓰는 사람들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올바른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상대방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지역방언에서 사용되는 방언 어휘를 알고 이해하며 이를 실제 언어활동에 이용한다는 것은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된다.

지역방언에 나타나는 방언 어휘 가운데는 방언형이 표준어와 그 형태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의미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 또는 용법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거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방언과 방언 간에도 기능이나 용법이나 의미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아재’인데,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저씨의 낮춤말, 아주머니의 낮춤말’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아재’의 실질적인 의미는 지역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인다. 즉 동일한 형태라 할지라도 방언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섭(1976)에서는 강원도 방언에서 ‘아재’가 ‘아저씨’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ㅅ이 다른 친족관계에 있는 ‘고모나 이모’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곽충구(2007 : 46~47)에서도 함북 육진방언의 ‘아재’가 표준어 ‘아저씨’와 동일한 기원에서 출발하지만 그 지칭의 범위가 다르다고 하였는데, 이 방언에서는 부모의 손아래 ‘고모, 이모, 외숙모, 형수’의 호칭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숙모, 고모, 이모, 외숙모, 형수’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 의미가 축소된 경우 ‘숙모, 형수’는 제외하고 대개 ‘고모’만을 포함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기갑(2005 : 108)에서는 서남방언에서 ‘아재’가 손위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가의 남자 어른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일가 친척이 아니더라도 동네에서 오래 살아 친숙한 남자 어른 등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고 하였다.

표준어 ‘며’에 대응되는 방언형을 보면, 중부방언권의 일부 지역과 남

부방언에서는 ‘나락’이 사용되지만, 중부 이북 지역에서는 대체로 곡식의 ‘날알’을 의미한다. 그런데 ‘나락’과 ‘벼’가 공존하는 전이지역에서는 두 방언형이 공존하지만 의미에서 차이는 보여, 논에 심어져 있거나 벼단에 붙어 있는 상태는 ‘나락’이라고 하고 탈곡하여 낱알의 상태로 된 것은 ‘벼’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이기갑(2007 : 302)에서는 전라도 남편이 아내에 대한 호칭을 할 때 ‘야’ 또는 ‘어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어이’는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또 ‘어이’와 어울리는 인칭대명사로 ‘자네’를 언급하고 있다. 이때의 ‘자네’는 분명 사전적인 의미인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와는 차이가 있다. 전라도에서 사용되는 ‘자네’는 보통 사용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어느 정도 대우해 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자네’를 쓸 수는 없다. 이런 ‘자네’의 쓰임은 전라도에서는 가능해도 경상도에는 잘 쓰이지 않는 듯하다. 근대 시기의 경상도에서 나온 간찰 자료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에게 ‘자네’라는 호칭을 쓰기도 하는데, 현재 경상도에서는 적어도 이런 쓰임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¹⁾

곽충구(2005 : 96)에서는 ‘쭈시다’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하는 육진방언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의미는 그 방언차가 크지 않지만, 여기서 번저나간 부의미는 방언차가 크다고 하였다.

의미	표준어	육진방언
다른 물건이 들어갈 만한 틈을 벌리거나 만들기 위하여 꼬챙이 따위로 찌른다.	쭈시다	쭈시다(디르다)
구들 고래를 청소하다.	쭈시다	훑어 내다
몸이 쏘는 듯이 아프다.	쭈시다	쏘다
이빨 사이에 낀 것을 이쭈시개로 찢어서 제거하다.	쭈시다	니르(이를) 츠다

1) 경북 안동에서 발굴된 이응태 묘에서 나온 16세기의 간찰 자료를 보면, 아내가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쓴 편지를 속에 남편을 ‘자네’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단어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방언형과 표준어형이 1:1의 대응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형태상으로 1:1의 대응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사용되는 의미에 있어서 방언형과 표준어형 사이에 의미 차이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지역방언에서 한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그것의 의미가 표준어형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면 그 단어가 지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만 서로의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 활동에서 각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 어휘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는 국어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방언 어휘 자료들의 의미, 기능, 용법 등을 제대로 알게 되면, 국어 사용자에게는 어휘를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이해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장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방언 어휘 속에는 해당 지역의 맛과 멋을 잘 드러내면서도 그 방언 어휘를 사용하는 지역의 문화나 지역민들의 생활과 정서,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휘들은 우리말을 풍부하게 해 줄뿐만 아니라 그 의미나 기능, 용법 등에서 국어 연구의 영역을 넓혀주기도 한다(박경래 외, 2008). 결국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해 주며 방언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해 주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국어생활에 도움을 주어 창조적 국어 사용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며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데 방언 어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방언에서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대응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대응하는 표준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는데, 다음이 그러한 예들이다.²⁾

2) 박경래·강영봉·김정대·곽충구(2008)와 박경래·이기갑·강영봉(2008)에서는 방언 자료 중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 또는 사전적인 의미와 다른 경우에 ‘새로 발굴한 방언’이라 하여 ‘방언형, 대응 표준어형, 품사, 뜻풀이, 관련 지역, 예문, 종합 설명’의 순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 방언형 : 해설피

표준어 : 없음

품 사 : 부사

뜻풀이 : 해질 무렵 햇빛이 열거나 약한 모양

[관련 지역] : 충북, 충남

<예문> 얼룩배기 황소가/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정지용, 향수>

<예문> 목화대 틈으로 해설피 반짝이는 서릿바람 그림자가 얼룩질 때
<이문구, 관촌수필>

(2) 방언형 : 툇다, 툇으니, 툇아

표준어 : 없음

품 사 : 동사

뜻풀이 : 손톱이나 발톱을 깎는 일 또는 행위

[관련 지역] : 강원 영동, 경북 등

<예문> 손톱이 길어서 불편하니 손톱 좀 툇아라.

(3) 방언형 : 호시다(동부), 호습다(서부)

표준어 : 없음

품 사 : 형용사

뜻풀이 : (흔들리는 것을 타면서) 재미있다.

[관련 지역] : 전남, 전북

(1)의 ‘해설피’, (2)의 ‘툇-’, (3)의 ‘호시-’ 등은 각 지역방언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들이지만 정작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형태이다. 물론 여기서 (1)의 ‘해설피’는 시어에 등장하고 노래 가사로 불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2)의 ‘툇-’은 동일한 어형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

이런 단어들이 말이나 글로 사용되었을 때 일차적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일정한 방해로 줄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방언형을 알게 됨으로써 어휘력의 신장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표현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점 또한 국어교육에서 방언 어휘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한다.

지역방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언 어휘의 의미, 기능, 용법 등을 정확하게 살피게 되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하게 기술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표준어에 대한 올바른 기술 및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국어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발둑, 발두둑’에 대한 의미 기술을 보도록 한다.

(4) ‘발둑, 발두둑, 발두렁’

발둑 : 발과 발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거나 발가에 둘러 있는 둑. ≒발두둑 「2」

발두둑 : 「1」 발두렁, 「2」 발둑

발두렁 : 발의 가장자리를 흙으로 둘러막은 두둑. ≒발두둑 「1」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뜻을풀이를 토대로 한다면 ‘발둑, 발두둑, 발두렁’ 등은 모두 ‘발과 발 사이의 경계를 이루거나 발가에 둘러 있는 둑 또는 두둑’ 정도의 비슷한 의미를 갖는 유의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많은 방언에서 ‘발둑’은 사전에서 기술된 의미로 쓰이지만, ‘발두둑’의 경우는 ‘발을 간 다음,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흙을 좀 두둑하게 쌓아 올린 부분.’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것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가 잘못되었거나 적어도 정확하게 기술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이렇듯 사전의 뜻풀이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기술을 방언 어휘의 의미를 통해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방언 어휘를 통해서 오히려 표준어 어휘의 기술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방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방언 음운과 국어교육

방언 음운과 국어교육의 관련성을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발음 교육이 떠오르게 된다. 국어과 교육과정 상에 발음 교육에 대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발음 교육의 목표는 국어의 규범에 맞게 발음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발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발음 교육의 목표가 곧 표준 발음의 교육 목표와 동일시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 동일한 방언을 사용하는 국어 화자라면 비표준 발음을 듣고서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뽀+는다’의 경우 표준 발음은 [밤는다]이지만, 동일한 방언을 사용하는 국어 화자가 [발른다]라고 했을 때 의사소통에 하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표준 발음보다 비표준 발음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남방언 화자들이 ‘강이 굉장히 넓네[널레].’라고 하면 상당히 어색해 한다. 표준 발음법 제10항의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된다.’는 규정을 참고한다면 동남방언 화자들은 표준 발음을 한다고 볼 수 있다.³⁾ 그런데 표준어에 가까운 말을 사용하는 화자들은 이 경우 비표준 발음인 ‘넓으네’를 쓰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그 말이 옳니[올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표준 발음인 ‘옳으네[오르네]’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까지 얘기를 한다.

김현(2005)에서는 올바른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대방언권별로 지역방언에 대한 발음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가르칠 내용을 선정하여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발음 실태를 조사하여 어

3) 물론 이때 동남방언 화자들은 성조를 없어서 발음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표준 발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운율적인 요소를 제외한 본질음 차원만을 생각한다는 점만을 중시하기로 한다.

떤 발음을 잘 하고 어떤 발음을 못 하는지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각 대단위 방언권별로 발음 실태를 조사하게 되면 발음에 어떤 음운은 구별하고 어떤 음운을 구별하지 못 하는지가 밝혀질 것이고, 음운변동과 관련하여서도 방언권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음운목록의 차이, 음운변동의 차이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를 교육적으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부 동남방언에서는 ‘ㅡ’와 ‘ㅓ’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이런 사실이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성별,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는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에 따른 효과적인 발음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승왕(2007)에 의하면 부산, 울산, 양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언 어간말 격음 ㅌ, ㅎ에 대한 발음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제 표준 발음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체언 어간말 격음을 보이는 명사 ‘끝, 술, 밭, 밭, 팔, 꽃, 솟, 웃, 빛, 덧’을 선정하고, 여기에 조사 ‘-이, -을, -에, 으로, -아’를 결합시킨 곡용형을 조사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곡용형 \ 비 율	표준발음 비율
술이[소치]	51.55%
술을[소틀]	29.38%
술에[소테]	29.38%
술으로[소트로]	38.66%
술아[소타]	31.44%

	-치	-시	-디	-티	-지
‘ㅌ+이’	62.37%	16.29%	2.37%	17.94%	1.03%
	-출	-술	-들	-틀	-줄
‘ㅌ+을’	44.85%	17.94%	3.19%	32.58%	1.44%
	-체	-세	-데	-테	-제
‘ㅌ+에’	26.8%	13.3%	4.64%	55.26%	0%
	-츠로	-스로	-드로	-트로	-즈로
‘ㅌ+으로’	35.77%	12.27%	3.51%	48.04%	0.41%
	-차	-사	-다	-타	-자
‘ㅌ+아’	17.63%	19.18%	16.9%	45.77%	0.52%

명사인 ‘술’에 조사 ‘-이, -을, -에, -으로, -아’가 결합한 경우, 각각 ‘술이[소치], 술을[소틀], 술에[소테], 술으로[소트로], 술아[소타]’와 같이 표준발음을 구사하는 비율이 ‘술이[소치]’를 제외하면 5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체언 어간말이 ‘ㅌ’인 경우를 평균 내어 보더라도 표준 발음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ㅌ+이, ㅌ+을, ㅌ+에, ㅌ+으로, ㅌ+아’의 경우는 각각 ‘62.37%, 32.58%, 55.26%, 48.04%, 45.77%’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발음 구사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자영(2007)에서는 부산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ㅌ 불규칙활용에 대한 발음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또한 표준어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ㅌ 불규칙활용을 보이는 단어인 ‘굽-, 깎-, 늑-, 뚫-, 줍-(이상 동사), 곱-, 가깝-, 따깝-, 아깝-, 덥-, 춥-, 더럽-, 지겹-, 시끄럽-(이상 형용사)’ 등을 선정하여 이들의 활용 패러다임을 분석한 결과, 동사의 경우에는 ㅌ 불규칙동사(굽-)뿐만 아니라 단어에 따라서 ㅌ 규칙동사(깎-), ㅌ 불규칙동사(늑-), ㅌ 규칙동사(뚫-), ㅌ 규칙동사(줍->도우-)로 나타났다. 반면 형용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ㅌ 불규칙형용사로 나타났으며, 일부 ㅌ 규칙형용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표준 발음 교육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각 지역방언에서 실현되는 발음 교육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아울러 실제 발음은 표기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비표준어를 양산하게끔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의 글 속에서 그 지역방언의 실제 발음이 그대로 표기법에 반영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지역방언에 대한 정확한 음운 지식과 지역적인 발음 특성을 이해한다면 방언적인 성격에 따라서 발음 교육뿐만 아니라 맞춤법의 오류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교육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어 교육이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주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방언의 발음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를 해당 지역의 국어교육 특히 말하기 교육과 쓰기 교육에 활용한다면 훨씬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부산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쓰기 자료이다.⁴⁾

- (5) 가. 엄마가 대리러 오신됐다.(ㄷ → ㄹ)
나. 내일이 채육대회를 하는 날이다.
다. 사람들 앞에서 패 썼던 기억이 난다.
- (6) 가. 기름을 얹에야 한다.(ㄷ → ㄹ)
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다. 오늘도 세벽에 교육청에 왔다.
- (7) 가. 오후가 돼니 심심해졌다.(ㄷ → ㅌ)
나. 다 왜우고 싶다.
- (8) 가. 내 차례가 됐는데(ㄷ → ㅌ)

(5)~(8)의 자료는 비단 부산 지역 학생들만의 맞춤법 오류는 아닌 듯하다. 표준 발음과는 상관없이 현재 대부분 지역의 학생들이라면 현실 발음에서 ‘ㄷ : ㄹ’의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ㅌ’를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맞춤법 오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자료는 부산 지역이나 좀 더 확대하여 동남방언에서 볼 수 있는 맞춤법의 오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예들이다.

4) 강민정(2008), 「초등학생 맞춤법 오류 분석과 지도 방안」, 부산교대 석사학위논문.

- (9) 고기는 싹히는 맛이 좋았다.
 (10) 가. 그기에서 가장 선배
 나. 이제 피드덕을 넣어요.

(9)의 경우는 ‘ㅅ : ㅆ’의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지역방언에서 볼 수 있는 예이며, (10)의 경우는 ‘ㅡ : ㅓ’의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예들이다.

- (11) 가. 조금 바주지.
 나. 가방이랑 잠바를 나 놓고
 다. 장남감이 뿌사졌다.
 라. 알기 더 쉽운 것 같다.
 마. 목련이 다 피서

부산 지역에서 ‘자음+w’가 연쇄될 경우 이중모음이 실현되지 않고 w가 탈락하는 경우가 흔한데, (11가~다)의 경우가 그런 예들이다. ‘봐→바, 놔 놓고→나 놓고, 부쉬→뿌사’에서 모두 w가 탈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1라)는 이 지역에서 ㅂ 불규칙활용을 보이는 형용사가 규칙 활용을 하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표기에서는 ‘쉬운→쉽운’으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으며, (11마)에서는 이 지역의 반모음화 현상이 표기법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피서’의 경우는 ‘피+ㅡ어서’의 활용형인데, 이 지역에서는 어간말모음이 ‘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경우 ‘어’가 탈락하는 규칙이 있다. 따라서 표준어라면 ‘피어서, 피서’가 될 것인데, 이 지역의 활용형이 그대로 표기법에 반영된 것이다.

지금까지 동남방언의 일부인 부산 지역어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법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맞춤법의 오류 유형 중 전국적인 맞춤법의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동남방언 좁게는 부산 지역어에서만 나타날 수 있을 법한 맞춤법의 오류도 상당수 있음을 알았다. (9)~(11)의 예가 그러한 경우인데, 이러한 맞춤법의 오류는 실제 이 지

역어의 발음과 상당히 깊은 관련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발음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게 되면 발음 교육에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는 어떤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음운 교육 또는 발음 교육에 활용한다면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된 잘못된 발음 유형을 찾을 수 있어서 올바르게 못한 발음을 교정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발음에서의 오류로 말미암아 생기는 맞춤법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방언 문법과 국어교육

국어의 사용 기능 중 방언의 문법적 요소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은 말하기와 쓰기 영역일 것이다. 특히 말하기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방언에 나타나는 문법적인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극단적으로는 큰 싸움에 이르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높임법을 들 수 있다. 국어는 높임법이 발달된 언어 중의 하나이며, 이것이 국어의 대표적 특징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높임법의 발달로 말미암아 높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기분을 언짢게 만들기도 하며 심하면 상대방과 싸움에 이르게까지 된다.⁵⁾

임철성(2001 : 45)에 의하면 서남방언에서는 상대가 손윗사람일지라도 비격식적인 상황에서는 반말투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고 한다. 그

5) 필자는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서울 출신의 한 교사가 필자의 고등학교교로 발령을 받아 왔다. 그런데 포항 출신의 학생 한 명이 서울 출신의 교사에게 “점심 드셨능교”라는 표현을 했다가 가혹할 정도로 혼난 사실이 있다. 그 학생은 동남방언에서 흔히 높임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사용했던 ‘-능교’에 대하여 서울 출신의 교사는 반말이라고 생각하고 심하게 혼을 낸 것이다. 방언의 문법적인 요소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긴 서로간의 오해라 할 수 있다.

래서 ‘엄마, 밥 먹었는가?’, ‘삼촌, 지금 어디 가?’와 같은 경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표준어에서는 손아랫사람에는 쓰는 ‘자네’를 서남방언에서는 가까운 형님뻘되는 손윗사람에게도 사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동남방언에서도 가끔씩 발견할 수 있는데 男尊女卑의 지역적 배경을 간직한 일부 지역에서는 할머니에게도 ‘할매, 밥 좀 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동남방언에서도 아주 높은 손윗사람에게 ‘알겠습니다.’와 ‘알겠어요.’를 모두 쓰지만, 아직도 일부 동남방언에서는 하십시오체의 ‘알겠습니다.’는 높임의 표현인 반면에 해요체의 ‘알겠어요.’는 반말투의 표현이기 때문에 ‘알겠어요.’를 반말로 인식하여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언짢은 감정을 갖는 어른들도 더러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보더라도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방언 문법적인 내용을 이해해야만 국어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중의 하나인 상호간의 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말하기 교육에서 높임법에 대한 지역방언의 형태, 기능, 의미 특성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국어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어의 사용 기능 중 방언의 문법적 요소가 말하기와 쓰기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말하기에서나 쓰기에서 표준어법에 맞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된다. 지역방언의 문법적인 요소 중 그 지역방언을 쓰는 화자는 느끼지 못하여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지역방언 화자들에게는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방언의 문법적인 요소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한다.

- (12) 가. 어제 여기 왔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
 나. 그 일을 다 했는 사람
 다. 그 친구는 밥을 참 잘 먹구나.
 라. 그 친구는 잘 달리구나.

(12)는 모두 동남방언에서 흔히 사용되는 예들이다. 표준어법에서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는’은 서로 共起할 수 없다. 서로 공기하게 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12가~나)의 경우를 보면 후행하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형 어미가 과거시제를 나타낼 때 동남방언에서는 ‘-었는’이 사용되고 이 지역방언 화자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 표준어라면 당연히 ‘왔는’은 ‘온’으로, ‘했는’은 ‘한’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표준어법에서는 감탄형어미의 용법 중 동사가 선행할 때는 ‘-는구나’가 결합하며, 형용사가 선행할 때는 ‘-구나’가 결합한다. 그런데 (12다~라)의 경우를 보면 ‘떡-, 달리-’와 같은 동사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감탄형어미 ‘-는구나’가 사용되지 않고 형용사일 때 결합하는 감탄형어미 ‘-구나’가 결합하여 ‘떡구나, 달리가구나’로 실현된다. 물론 표준어법에 맞게 사용하려면 ‘떡는구나, 달리는구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역방언 화자들은 ‘떡구나, 달리가구나’를 전혀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12)의 예에서 보듯이 해당 지역방언 화자들이 방언의 문법적인 요소에 대하여 표준어법에는 맞지 않지만 국어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口語에서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쓰기 활동에까지 영향을 주어 (12)와 같은 맞춤법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⁶⁾ 따라서 말하기 교육에서 먼저 해당 지역방언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법적 요소의 오용에 의한 오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바로잡아야만 쓰기 교육에서 비슷한 유형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올바르게 효율적인 국어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역방언 화자들이 표준어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문법적인 요소, 또는 문법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토대가 된 국어교육이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어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이 국어교육에 있어서 방언 문법에 대한 이해가 갖추어지고 지역화 교재가 개발되었을 때 한 단계 발전된 국어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초등학교생에게서 이와 같은 맞춤법의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강민정(2008)을 참고할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끝맺음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양립하기 어려우며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기도 하는 ‘지역방언’과 ‘국어교육’이라는 이들 둘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국어교육에 있어서 지역방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나 비전문가 집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어, 방언, 사투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역방언의 개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국어교육에서 지역방언을 국어 사용 기능 중 어느 영역에 활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논의하였는데, 이를 위해 언어학적 층위인 어휘, 음운, 문법적 층위를 고려하여 각각 이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지역방언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 어휘와 방언 음운, 방언 문법 등의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이해되어야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이뿐만 아니라 말하기 교육이나 쓰기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 본 논문은 2009. 6. 22. 투고되었으며, 2009. 7. 4. 심사가 시작되어 2009. 7.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민정(2008), 「초등학생 맞춤법 오류 분석과 지도 방안」, 부산교대 석사학위논문.
- 곽충구(2005), 「비교방언론」, 『방언학』 1, 한국방언학회, pp.73~102.
- 곽충구(2007), 「동북방언의 어휘-함북방언을 중심으로」, 『방언학』 5, 한국방언학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II(국어)』, 교육과학기술부.
- 구본관(2007), 「경상도 방언의 어휘 기술과 연구 방법론」, 『방언학』 5, 한국방언학회.
- 김옥화(2001), 「방언」, 『방언학사전』, 태학사.
- 김 현(2005), 「발음 교육에 대한 단상」, 『국어교육학연구』 24, 국어교육학회, pp.245~266.
- 박경래·강영봉·김정대·곽충구(2008), 「새로 발굴한 방언(2)」, 『방언학』 8, 한국방언학회.
- 박경래·이기갑·강영봉(2008), 「새로 발굴한 방언(1)」, 『방언학』 7, 한국방언학회.
- 박희영(2009), 「겹받침 발음의 실태분석과 지도방안 연구-부산 지역 초등학생 중심으로」, 부산교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귀남(2009), 「방언 어휘론의 현황과 과제」, 『국어학』 54, 국어학회.
- 안병희(2001), 「우리 나라의 방언과 문학」, 『문학과 방언』, 역락출판사.
- 윤천택(2003), 「방언의 국어교육적 의의」, 『청람어문교육』 27, 청람어문교육학회, pp.1~26.
- 이경엽(2001), 「지역문화와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3, 국어교육학회.
- 이기갑(2005), 「방언분화와 방언구회」, 『방언학』 1, 한국방언학회, pp.103~123.
- 이기갑(2007), 「지역 문화와 방언」, 『방언 이야기』(국립국어원 국어자료총서 1), 태학사, pp.291~312.
- 이병근(1985), 「방언」, 『국어국문학연구사』, 우석.
- 이병근(2001), 「방언과 방언학」, 『방언학사전』, 태학사, pp.19~27.
- 이승왕(2007), 「체언 어간말 격음 ㅌ, ㅊ의 실현양상과 지도방안」, 부산교대 석사학위논문.
- 이익섭(1976), 「‘아재’고 ; 방언조사방법의 한 반성」, 『동이문화』 13, 서울대 동이문화연구소.
- 임철성(2001), 「지역어와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3, 국어교육학회.
- 전지영(2007), 「‘ㄴ’ 불규칙 활용의 표준 발음에 대한 오류 실태 조사」, 부산교대 석사학위논문.
- 최명옥(2005), 「국어방언학의 체계」, 『방언학』 1, 한국방언학회.

<초록>

지역방언과 국어교육

김봉국

‘지역방언’과 ‘국어교육’ 이 둘의 관계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어떤 때는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이 글은 이들 둘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국어교육에 있어서 지역방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나 비전문가 집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어, 방언, 사투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역방언의 개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국어교육에서 지역방언을 국어 사용 기능 중 어느 영역에 활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논의하였는데, 이를 위해 언어학적 층위인 어휘, 음운, 문법적 층위를 고려하여 각각 이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지역방언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 어휘와 방언 음운, 방언 문법 등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국어교육에 제대로 반영되어야만 의사소통의 원활성뿐만 아니라 말하기 교육이나 쓰기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지역어, 지역방언, 방언 어휘, 방언 음운, 방언 문법, 국어교육

<Abstract>

Reginal Dialect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Kim, Bong-gook

It is necessary that reginal dialect as a subject to educate should be flexible. It is because learners expand range of their reginal dialect according to grow u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icient relation made use for reginal dialec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reach the goal of this study, it should be examined thoroughly notions as follows : reginal language, dialect, reginal dialect.

considering linguistic hierarchy, it is investigated issues as follows: (1) to make use of dialect vocabular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2) to make use of dialect phonem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3) to make use of dialect gramma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specialis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ave to keep their mind on significance of dialect. And they have to do their best to improve Korean language lesson and to attain the go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reginal language, reginal dialect, dialect vocabulary, dialect phonology, dialect grammar, Korean language education